

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영농물품 기부

윤 차진형기자 | 승인 2026.09.22 17:56 | 10면

가을 수확기 농업인 단체에 300만원 상당 모자·쿨토시 등 지원



▲ 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 김해·양산·부산지사는 지난 22일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한국후계농업인김해시연합회에 300만원 상당의 영농물품을 전달했다. /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

한국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(본부장 박찬희) 김해·양산·부산지사(지사장 손홍모)는 지난 22일 가을 수확기를 맞아 바쁜 영농작업으로 땀 흘리는 지역 농업인들을 지원하고자 한국후계농업인김해시연합회에 300만원 상당의 영농물품을 전달했다.

이번 기부활동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논밭작물 관리 등 야외 영농활동에 매진하는 농업인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고, 실질적인 영농 편의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. 이날 전달된 물품은 농업 현장에서 필수적인 농작업용 모자 400개와 쿨토시 450개 등 총 300만원 상당의 야외활동 대비 농작업용 영농물품으로 구성됐으며, 한국후계농업인김해시연합회를 통해 관내 회원 및 지역 농업인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.

한국후계농업인김해시연합회 관계자는 "수확기를 맞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기에 농업인들의 고충을 헤아려 실용적인 영농물품을 지원해 준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에 깊이 감사드린다"며, "전달받은 물품은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회원들과 농업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"이라고 소감을 전했다.

손흥모 한국농어촌공사 김해양산부산지사 지사장은 "가을철 바쁜 영농일정 속에서도 구슬땀을 흘리는 지역 농업인들에게 이번 나눔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"며, "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농업인의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이어갈 것"이라고 전했다. 차진형기자

저작권자 © 경남도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



차진형기자